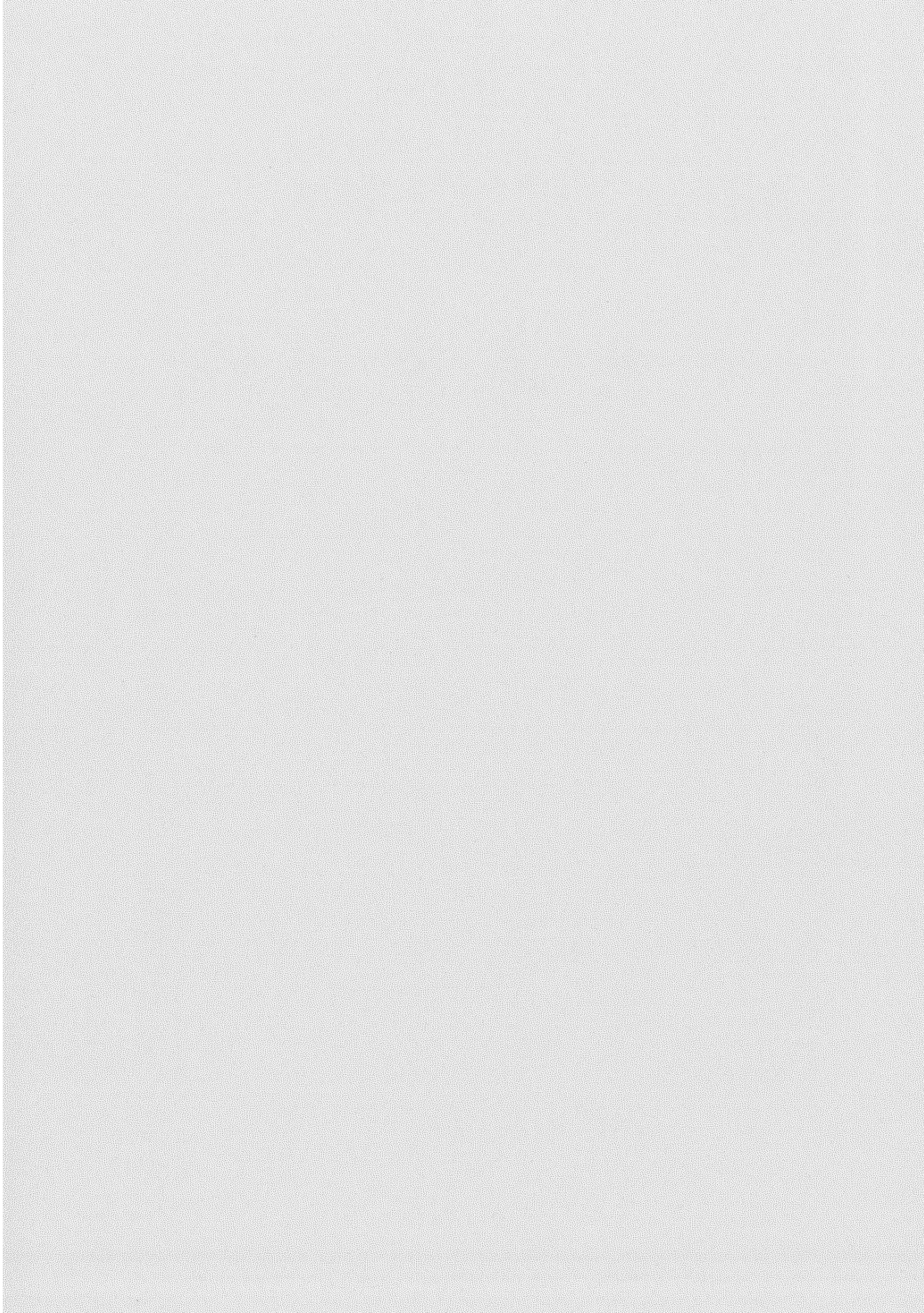


第115回 忠清北道教育委員會(臨時會)

# 本會議會議錄

忠清北道教育委員會



# 목 차

2000. 7. 통권 제70호

I. 개회식 .....	3
II. 제115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	5
III. 제115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	11
IV. 부 록	
1. 의사일정 .....	17
2. 교육기관 방문의 건 .....	19
3. 교육자치를 일반자치에 통합 반대 결의문 채택의 건 .....	21



# 本 會 議 會 議 錄

忠清北道教育委員會 議事局

2000년 7월 13일(목요일) 10시 06분

## 開會式順(第115回 臨時會 開會式)

1. 개식
2. 국기에 대한 경례
3. 폐식

(사회:의사담당 유근영)

(10시 06분 개식) 본회의가 개의되겠습니다.

### ● 의사담당 유근영

(10시 08분 폐식)

지금부터 제115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개최식을 거행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전면의 국기를 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국기에 대하여 경례

(주악)

바로. 이하는 생략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이상으로 개최식을 마치고 이어서 바로



# 本 會 議 會 議 錄

忠清北道教育委員會 議事局

2000년 7월 13일(목요일) 10시 08분

## 議事日程 (제11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1. 제115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교육기관 방문의 건

## 附議된 案件

1. 간부소개(부교육감)
2. 경과보고(의사과장)
3. 제115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4. 교육기관 방문의 건(김광수위원 외 6인)

(10시 08분 개의) 포함니다.

### ● 의장 조일환

의석이 모두 정돈되었으므로 제115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그리고 집행청 간부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미래 사회를 이끌어 나갈 창의적인 인재육성에 여념이 없으신 교육위원 여러분, 그리고 충북 교육가족 여러분께 평소의 심심한 사의를

더구나 최근 일각에서 비춰지고 지방교육 자치제도의 구조조정 논의에서 우리 교육가족 모두가 한마음으로 우려의 입장을 표명하고 있음은 실로 유감스러운 일이라 아니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시대 상황 속에서 우리 모두는 스스로 슬기로운 대처 능력을 배양하고 올바른 처세와 각오로 본연의 임무에 충실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래야만 우리의 교육자치가 독립적이고 우리 교육위원 활동이 보다 발전될 수 있으

리라고 생각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계속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 드립니다.

회의진행에 앞서서 한가지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교육감님께서 전국 시·도교육감 회의 참석차 오늘 불참하게 되었습니다.

저한테 보고가 있었고 여러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이 이미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7월 12일자 인사발령에 따라서 저희 의사국 간부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집행청 그리고 위원님께 공식적으로 소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좋은 인재를 저에게 발탁해 주신 교육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소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김성기 국장님, 그리고 이상기 과장님 앞으로 좀 내려가 주시죠.

(의사국·과장 단상 앞에 나옴)

제가 단상에 내려가서 소개를 드려야 하는데 이해해 주십시오.

김성기 국장님은 아시다시피 건국대학에서 교육행정학 석사까지 하고 교육경력 34년, 거의 35년에 가깝게 이렇게 교육경력이 있으신 아주 훌륭한 우리 교육청 내에서도 덕망도 있으시고 또 평소에도 인성도 고우셔서 항상 주변의 찬사를 받고 있는 분입니다.

이런 분을 추천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김국장님, 인사 한번 하시죠.

(의사국장 목례)

다음은 이상기 과장님 아시다시피 인사국장님으로 있으시다가 탁월한 행정력뿐만 아니라 이분 역시 충북대학에서 교육행정학 석사하고 30년이 넘게 교육에 봉직하셨습니다.

때는 늦은 감이 있습니다마는 우리 서기관으로 승진한 것을 축하하면서 우리 여러분들께 인사소개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사과장 목례)

들어가지죠.

(의사국·과장 자리로 돌아감)

그러면 이어서 우리 집행청에서도 간부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교육감님께서 나오셔서 우리 교육위원님들께 인사소개 해 주실 것을 부탁 올립니다.

(부교육감 발언대로 나옴)

## 1. 인사소개

(10시 10분)

### ● 부교육감 유선규

어제 7월 12일자 인사발령에 따른 본청 간부 직원의 인사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일영 기획관리국장님에 이어서 자체 승진의 영광과 기쁨을 같이하게 된 신임 기획관리국장님께서서는 음성 출생으로 충북대학교 행정대학원을 졸업하셨고 주요 경력으로는 '67년에 처음 공직에 발을 들여서 '78년에 지방행정사무관, 그 다음에 '95년에 지방서기관으로 승진하셨습니다.



주요 경력으로는 본청에 재무과장, 행정과장, 기획관리과장, 총무과장으로 근무하시다 이번에 국가서기관으로 승진해서 기획관리국장으로 승진 발령이 났습니다.

기획관리국장님 인사 드리시죠.

(기획관리국장 목례)

다음은 본청 과장님에 대한 인사소개가 있겠습니다.

교육위원회 의사국장 신춘우 지방서기관이 본청 총무과장으로 전보가 되셨습니다.

(총무과장 목례)

역시 의사국에 계셨던 의사과장 박영하 지방서기관님께서 본청 학교운영지원과장으로 전보되었습니다.

(학교운영과장 목례)

감사합니다.

(부교육감 자리로 돌아감)

● 의장 조일환

수고하셨습니다.

참 우리 교육청이 경사스럽습니다.

지방부이사관이 새로이 자리가 마련되었고, 또 국가서기관 우리 관리국장님 저번에도 저희 본청에서 승진했습니다마는 이번에도 계속 승진을 해서 여러분과 더불어서 축하해마지 않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15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관계관 석에서 "... (칭불)... " 하고 말함)

아, 그렇습니까?

잠깐 일정을 바꾸겠습니다.

여기 우리 과장님으로부터 오늘 회의가 있게 된 보고를 하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의사과장 발언대로 나옴)

2. 경과보고

(10시 14분)

● 의사과장 이상기

의사과장 이상기입니다.

먼저 임시회 소집 및 집회공고에 관한 사항입니다.

2000년 7월 6일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서 교육위원 전원의 서명으로 교육위원 집회가 요구가 있어 같은 날 충청북도교육위원회 공고 제 2000-7호로 제115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집회를 공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전회기 의결안건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14회 임시회에서 처리된 의안중 1999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과 1999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 안건은 지난 6월 22일 제174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승인 이송되어 왔으며, 충청북도교육위원회행정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교육·학예법제심의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7월 10일부터 7월 13일까지 개최되는 제176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에 상정되어 심의 중에 있습니다.

금번 회기에는 위원발의 된 교육기관 방문의 건을 처리하신 후에 대상 교육기관을 일정별로 방문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과장 자리로 돌아감)

● 의장 조일환

제가 이 시나리오를 가끔 잘 빼먹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제115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10시 16분)

● 의장 조일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15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미 통보해 드린 바와 같이 제115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는 오늘 7월 13일부터 7월 15일까지 3일간으로 하고 오늘 오후부터 7월 14일까지는 교육기관을 방문한 후에 회기 마지막 날인 7월 15일에는 위원님들께서 직접 현장방문하신 결과를 직접 정리·수합하는 이러한 회기일로 협의하였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서면으로 나누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본 의사일정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의가 없으므로 제115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회기는 7월 13일부터 7월 15일까지 3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참조 의사일정안 : 별첨1

(끝에 실음)

4. 교육기관 방문의 건

(10시 17분)

● 의장 조일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교육기관 방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우리 발의 위원을 대표하셔서 김광수 위원님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실 것을 부탁 올립니다.

(김광수 위원 발언대로 나옴)

● 김광수 위원

김광수 교육위원입니다.

교육기관 방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본 위원을 포함한 교육위원 전원 의 찬성으로 발의하였습니다.

방문대상기관은 각 지역교육청별로 초·중등학교를 선정하여 방문대상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에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여름철 교육환경관리 실태를 전반적으로 확인·점검하되 학교급식 운영 및 음용수 관리 상태 그리고 적절한 온도유지 등에 관심을 가지고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다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

자료를 수집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방문일자는 금일 오후부터 7월 14일까지 2일간으로 하며, 7월 15일에는 방문결과를 분석·협의하여 본 위원회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로 정리 활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방문대상기관 및 자세한 일정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을 포함한 전체 교육위원이 공동으로 발의한 교육기관 방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 조 교육기관 방문의 건 : 별첨2  
(끝에 실음)

(김광수 위원 자리로 돌아감)

● 의장 조일환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수 위원님께서 제안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교육기관 방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회의록 서명위원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에 의해서 금회 회의록 위원은 이상일 위원님과 이충원 위원님께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본회의를 마치기 전에 아까 간담회에서 잠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의장인 저는 착잡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가뜰이나 교육자치가 근본적으로 흔들려서 행정자치로 통합을 하느니 정치적인 중립을 지키고 교육의 전문성을 살리기 매우 열악한 어려운 이 시기에 저희 교육위원회에서는 우리 교육위원회 위원활동을 보다 원활히 충실히 하기 위해서 위원전원의 발의로 감사조례를 개정해서 이것을 교사위원회에 이첩한 일이 있습니다.

아직 오늘 11시에 본회의에서 그것의 가결여부가 결정되었겠습니까마는 본 의장이 보고 받기로는 교사위원회에서는 일단 부결쪽으로, 또 그 사유가 형평성이 맞지 않습니다. 도의회는 이미 상반기, 하반기 정기회를 분리를 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형평성의 기준이 무엇인가, 여러분들과 더불어서 고심하고 하루속히 우리 교육자치가 독립 의결기구가 돼서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교육의 전문성을 교육현장에 마음껏 살리시는 그런 날이 와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혹여나 우리 위원님께서는 사기저하 되시지 마시고 그럴수록 우리는 의연히 맡겨진 위원 업무에 충실히 해 주시리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더욱이 집행청에 부탁을 드리는 것은 우리 교육자치가 의결기구의 독립뿐 아니라 의사국의 독립이 안돼 있습니다.

항상 우리 의사국 직원들은 위원들의 보좌를 하면서도 항상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

습니다.

이점 집행청에서 충분히 배려를 하셔서 우리 의사국 직원이 독립 의결같이 의사국 신분은 아닙니다마는 일단 우리 교육위원회 업무를 충실히 하도록, 우리 교육위원들은 보좌관도 없습니다. 또 여러분이 교육을 감시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막중한 책임을 맡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것은 우리 집행청에서도 교육위원회 직원이라는 생각으로 적극 협조해 주시고, 다시 한번 교육위원님께 의장직을 잘못 수행을 해서 이러한 불미스러운 사태가 발생했다는 것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심심하게 사과의 말씀을 올립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오늘 이것으로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오늘 오후부터 실시되는 교육기관 방문에 대해서는 우리가 스스로 자청을 해서 어느

교육기관에 괴로움을 주자는 것이 아니라 저희 의사국에서도 미리 가는 학교를 지정하지마라. 준비없이 평소의 모습을 보도록 해 달라고 부탁을 올렸습니다.

여름철 급식학교 운영이 얼마나 중요하고 하절기 위생이 예년 상당한 우리 학생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바로 회의가 끝나시면 아마 교육현장에 나가셔야 됩니다.

일정도 무리하게 잡혀 있습니다.

위원님들 수고가 헛되지 않게 우리 교육현장에 좋은 여러분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 말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15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협의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0시 25분 산회)

○ 출석위원 : 7명

의장 조일환, 부의장 이기수,

위원 김광수, 손만재, 송진하, 이상일, 이충원.

○ 출석공무원 : 12명

부교육감 유선규,

교육국장 이주원,

기획관리국장 이기수,

공보감사담당관 안용균,

초등교육과장 신유철,

중등교육과장 김전원,

교육정보화과 채수병,

평생교육체육과장 김태봉, 총무과장 신춘우,

기획관리과장 김진성,

학교운영지원과장 박영하, 시설과장 오형균.

※ 부 록

▶ 의사일정안 : 별첨1

▶ 교육기관 방문의 건 : 별첨2

# 本 會 議 會 議 錄

## 忠清北道教育委員會 議事局

2000년 7월 15일(토요일) 11시 00분

### 議事日程 (제11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1. 제115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
2. 교육자치를 일반자치에 통합 반대 결의문 채택의 건

### 附議된 案件

1. 경과보고(의사과장 이상기)
2. 제115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의장 제의)
3. 교육자치를 일반자치에 통합 반대 결의문 채택의 건(이상일위원 외 6인)

(11시 00분 개의)

#### ● 의장 조일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5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우선 저희들이 의사일정을 부득이 변경을 했습니다.

우리 교육자치 내지는 교육의 독자적인 독립을 위해서 오늘 위원님들께서 좋은 의견을 여러분 앞에 의결을 해서 채택을 하려고 합니다.

이점 집행청에서도 좀 이해를 해 주시고,

오늘 결의하는데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십시오. 부탁 말씀 드립니다.

무더운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이틀동안 계속해서 우리 교육위원님들께서 일선의 하절기 위생 내지는 급식에 대한 여러 가지 사항을 직접 훑어 보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번 임시회를 다소 무리한 일정으로 진행함으로써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어려움이 계셨으리라고 생각이 돼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더욱이 이번 임시회 회기중에는 촉박한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최근 교육자치제도

의 구조조정 움직임에 대하여 교육위원님과 과 교육가족 모두의 강력한 반대의지를 천명하고자 부득이 의사일정을 변경하였습니다.

저희 교육자치를 일반자치에 통합 반대, 중요한 문제입니다.

제2차 본회의를 소집하게 된 것을 다시 한번 사과 말씀 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양해 있으시기를 거듭 부탁드립니다. 먼저, 의사과장으로부터 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과장 발언대로 나눔)

1. 경과보고

(11시 04분)

● 의사과장 이상기

의사과장 이상기입니다.

금번 임시회 회기 중인 7월 14일 이상일 교육위원 외 6명의 교육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발의된 교육자치를 일반자치에 통합 반대 결의문이 서면으로 제출되어 같은 날자로 접수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과장 자리로 돌아감)

2. 제115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

● 의장 조일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15회 충청북도 교육위원회 임시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이번 임시회의 의사일정을 변경하게 된 것은 교육위원님들 전원 찬성으로 발의된 교육자치를 일반자치에 통합 반대 결의문을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 채택하기 위해서 변경을 하였습니다.

본 의사일정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의가 없으므로 제115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교육자치를 일반자치에 통합 반대 결의문 채택의 건

(11시 05분)

● 의장 조일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교육자치를 일반자치에 통합 반대 결의문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체 발의위원을 대표하셔서 우리 이상일 위원님께서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고 결의문을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일 위원 발언대로 나눔)

● 이상일 위원

이상일 교육위원입니다.

교육자치를 일반자치에 통합하는 것에 대해 반대 결의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본인을 포함하여 교육위원 전원

의 공동으로 발의하였습니다.

해방이후 우리 교육은 여러 가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려고 노력해 왔으며, 자주성, 전문성, 교육자치 능력을 꾸준히 발전시켜 왔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교육자치를 일반자치에 통합하려는 시도는 헌법 31조제4항이 보장하고 있는 교육의 자주성·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근본적으로 침해하는 것으로써 교육의 주체인 교원과 학부모의 교육적 자존심을 짓밟는 처사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전국 시·도의 재정자립도가 평균 59%에 불과하고 천문학적인 규모의 부채에 허덕이는 지방자치단체에 교육자치를 통합할 경우 오히려 교육재정을 더욱 악화시켜 교육기반이 붕괴될 것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교육정책의 교육적 역기능을 심각하게 우려한 우리 교육위원 일동은 지방교육자치 파괴 시도를 즉각 중지하도록 촉구하여 교육자치가 완전 정착될 수 있도록 결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동료 위원님께 이미 배부하여 드린 바와 같이 결의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조일환

잠깐 위원님, 우리 위원님들 일어서시죠. 결의문이니까.....

● 이상일 위원

잠깐 여기, 본 결의문이 만장일치로 채택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찬

성을 부탁드립니다.

잠시 위원님들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 의장 조일환

그것은 우리 요령을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면은 “결의한다”는 같이 제창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의결기구화하여야 한다.” 그러면 끝 구절만 같이 합창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손을 들고 저희들 다같이 결의하겠습니다.

● 이상일 위원

“교육자치를 일반자치에 통합 반대 결의문, 우리는 최근 정부 일각에서 교육자치를 일반자치에 통합시키려 하는데 대하여 충격과 경악을 금치 못한다. 교육은 국가발전의 원동력이며 국가 경쟁력을 배양하는 기반이다. 21세기 지식정보화 사회에 대비하고 치열한 국제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교육에 대한 투자가 지속적으로 증대되어야 하며, 교육 그 자체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을 견지하여야만 더욱 정의롭고 바람직한 사회로 발전할 것이다. 교육재정이 통합될 경우 도세가 열악한 충청북도의 낮은 재정자립도와 높은 부채 비율은 교육에 대한 투자의 여력이 의심스럽고, 이에 따라 타시·도와의 심각한 교육격차를 가져오게 되어 누구나 평등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박탈 당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우리 충청북도교육위원회 교육위원 일동은

올바른 교육을 위해 교육자치는 일반자치와는 완전 분리 독립되어야 함을 천명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결의한다.”하는 위원 있음)

1. 교육위원회를 시·도의회외의 분과위원회화 하려는 시도는 사실상 지방교육자치의 폐지선언이나 다름없는 것이므로 진정한 교육자치가 이룩될 수 있도록 시·도 교육위원회에 완전한 심의·의결권을 부여하여 교육위원회를 독립형 의결기구화 하여야 한다.

1.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교육간의 임명권과 교장 인사권을 부여하고자 하는 것은 교육이 정치에 예속되어 그 피해는 결국 학생, 학부모에게 돌아가게 될 것이다. 이는 교육자치의 포기를 의미하며 헌법이 규정한 교육의 자주성·전문성 및 정치적 중립성을 해치는 위헌적인 발상이다.

1. 국민의 정부 공약사항인 교육관련 예산을 GNP대비 6% 확보하여 열악한 교육여건을 개선하고 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를 촉구한다.

1. 경제논리로 교육자치를 말살하려는 통합추진을 즉각 중지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우리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 모든 교육동지와 그리고 뜻을 같이 하는 도민과 함께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2000년 7월 15일 충청북도교육위원회 교육위원 일동”

● 의장 조일환

박수 한번 치실까요?

● 이상일 위원

박수로 채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 소리)

▶ 참 조 교육자치를 일반자치에 통합 반대 결의문 채택의 건 : 별첨3

(끝에 실음)

(이상일 위원 자리로 돌아감)

● 의장 조일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이상일 위원님께서 낭독해 주신 결의문에 대해서 다른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교육자치를 일반자치에 통합 반대 결의문은 교육위원 모두의 만장일치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채택된 결의문은 저희가 교육부, 행정자치부 등의 해당 부처와 각 시·도 교육위원회에 송부함으로써 교육위원 모두의 반대 의지와 교육가족 모두가 우려하는 통합추진의 부당성을 교육계 모두에게 천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에는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급식학교 운영 및 음용수 상태 등의 여름철 교육환경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일선 교육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어려운 의정활동을 무난히 수행해 주신 교육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회의를 마치기 전에 우리 집행청에 한가



지 당부를 드릴 것은, 우리 위원들께서 이들이 좀 부족하긴 합니다마는 교육기관을 방문하고 그야말로 좋으신 현장을 확인한 결과를 서면화로 했습니다.

이것을 여기서 일일이 보고는 드리지 않겠습니다만은 이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을 올리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특산물 이용을 고려한 납품업자의 선정이라든가, 또 아동들의 성인병 예방을 위한 식단 구성, 또 학생, 학부모의 선호도를 고려한 우유제품 선정, 제품 저품질 식품의 납품 방지를 위한 최저가 납품업자 선정방법의 검토가 필요하다. 그 다음에 급식운영 및 관리업무의 간소화 방안이 강구되어야 되겠다. 또 조리실 근무환경 개선이 필요하고, 특히 조

리사의 보조조리사인 경우에 학부모가 봉사로 나와 있는 우리 학부모의 위생상태가 여러 가지 염려가 된다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집행청에 이송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셔서 위원님들의 좋으신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또 이점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앞으로 있을 행정감사에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산회 및 제115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1시 14분 폐회)

○ 출석위원 : 7명

의장 조일환, 부의장 이기수,  
위원 김광수, 손만재, 송진하, 이상일, 이충원.

○ 출석공무원 : 13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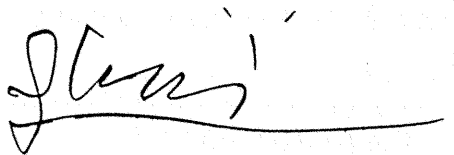
교육감 김영세, 부교육감 유선규, 교육국장 이주원,  
기획관리국장 이기수, 공보감사담당관 안용균, 초등교육과장 신유철,  
중등교육과장 김전원, 과학실업교육과 정호선, 교육정보화과 채수병,  
총무과장 신춘우, 기획관리과장 김진성, 학교운영지원과장 박영하,  
시설과장 오형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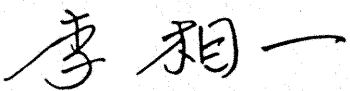
※ 부 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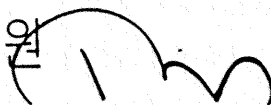
- ▶ 교육자치를 일반자치에 통합 반대 결의문 채택의 건 : 별첨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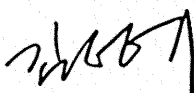
제115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회의록을  
위와 같이 작성하고 아래와 같이 연서함

2000. 8. .

의 장 조 일 환 

위 원 이 상 일 

위 원 이 충 원 

의사국장 김 성 기 

(별첨1)

# 議 事 日 程

第115回 忠清北道教育委員會(臨時會)

2000. 7. 13. ~ 7. 15.(3日間)

日 時	附 議 案 件	備 考
7月 13日 (木) (09:30)  (10:00)	<input type="checkbox"/> 懇談會 : 教育委員室  <input type="checkbox"/> 開會式  [第1次 本會議 開議]  1. 第115回 忠清北道教育委員會(臨時會) 會期決定의 件 · 會期 : 2000. 7. 13. ~ 7. 15.( 3日間) 2. 教育機關 訪問의 件  [第1次 本會議 散會]  <input type="checkbox"/> 教育機關 訪問	
7月 14日 (金)	<input type="checkbox"/> 教育機關 訪問	本會議 休會
7月 15日 (土) (11:00)	[第2次 本會議 開議]  1. 第115回 忠清北道教育委員會(臨時會) 議事日程 變更의 件 2. 「教育自治會 一般自治에 統合 反對 決議文」 採擇의 件  [第2次 本會議 散會]  <input type="checkbox"/> 教育機關 訪問結果 協議  ※ 閉 會	



(별첨2)

의안번호	제 115 - 1호
의 결 년 월 일	2000. 7. 13. (제 115 회)

## 교육기관 방문의 건

발 의 자	김 광 수 교육위원 외 6 명
발의년월일	2000. 7. 6.

# 교육기관 방문의 건

의안 번호	제 115 - 1 호
----------	-------------

발의년월일 : 2000 년 7 월 6 일

발 의 자 : 김 광 수 교육위원외 6명

## 1. 주 문

제115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임시회) 회기중 다음과 같이 교육기관을 방문한다.

가. 방문기간 : 2000. 7. 13. ~ 7. 14.(2일간)

나. 대상기관 : 붙임 “교육기관 방문일정” 참조

## 2. 사 유

가. 학교급식 운영 및 음용수 관리실태 확인

나. 여름철 교육환경 관리실태 확인(교실 실내온도 등)

(별첨3)

의안번호	제 115 - 2호
의 결 년 월 일	2000. 7. 15. (제 115 회)

— 교육차치를 일반자치에 통합 반대 —  
**결 의 문 채 택 의 건**

발 의 자	이 상 일 교육위원 외 6명
발의년월일	2000. 7. 14.

— 교육자치를 일반자치에 통합 반대 —  
**결 의 문 채 택 의 건**

의 번	안 호	제 115 - 2호
--------	--------	------------

발의년월일 : 2000년 7월 14일  
발 의 자 : 이상일 교육위원외 6명

### 1. 주 문

제115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임시회) 회기중 다음과 같이 「교육자치를 일반자치에 통합 반대」 결의문을 채택한다.

### 2. 사 유

- 진정한 교육자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도 교육위원회에 완전한 심의·의결권을 부여하여 교육위원회를 독립형 의결기구화 하도록 촉구함.
- 교육자치의 일반자치 통합은 헌법 제31조 제4항에서 보장된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및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음.
- 전국 시·도의 재정자립도가 평균 59%에 불과하여 지방자치에 교육자치를 통합할 경우 교육재정을 더욱 약화시켜 교육기반이 붕괴될 우려가 있음.
- 교육위원 일동이 정부의 지방교육자치 파괴 시도를 중지하도록 촉구하여 교육자치가 정착될 수 있도록 결의하고자 하는 것임.

### 3. 찬성자 서명부 : 붙임과 같음



# 결 의 문

## —교육자치를 일반자치에 통합반대—

우리는 최근 정부 일각에서 교육자치를 일반자치에 통합시키려 하는데 대하여 충격과 경악을 금치 못한다.

교육은 국가발전의 원동력이며 국가 경쟁력을 배양하는 기반이다.

21세기 지식정보화 사회에 대비하고 치열한 국제경쟁에서 이기기 위하여는 교육에 대한 투자가 지속적으로 증대되어야 하며, 교육 그 자체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을 견지하여야만 더욱 정의롭고 바람직한 사회로 발전할 것이다.

교육재정이 통합 될 경우 도세가 열악한 충청북도의 낮은 재정자립도와 높은 부채 비율은 교육에 대한 투자의 여력이 의심스럽고, 이에 따라 타시·도와의 심각한 교육격차를 가져오게 되어 누구나 평등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박탈 당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우리 충청북도교육위원회 교육위원 일동은 올바른 교육을 위해 교육자치는 일반자치와는 완전 분리 독립되어야 함을 천명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교육위원회를 시·도의회외 분과위원회화 하려는 시도는 사실상 지방 교육자치의 폐지 선언이나 다름없는 것이므로 진정한 교육자치가 이룩될 수 있도록 시·도 교육위원회에 완전한 심의·의결권을 부여하여 교육위원회를 독립형 의결기구화 하여야 한다.

1.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교육감의 임명권과 교장 인사권을 부여하고자 하는 것은 교육이 정치에 예속되어 그 피해는 결국 학생, 학부모에게 돌아가게 될 것이다. 이는 교육자치의 포기를 의미하며 헌법이 규정한 교육의 자주성·전문성 및 정치적 중립성을 해치는 위헌적 발상이다.

1. 국민의 정부 공약사항인 교육관련 예산을 GNP대비 6%확보하여 열악한 교육여건을 개선하고 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를 촉구한다.

1. 경제논리로 교육자치를 말살하려는 통합추진을 즉각 중지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우리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 모든 교육동지와 그리고 뜻을 같이 하는 도민과 함께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2000년 7월 15일

충청북도교육위원회 교육위원 일동